

## 중국 연변지역의 일반개황 및 정보산업화 정책

연변은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이 4.27만 평방키로미터이며, 대만에 비해 크다. 비록 면적이 동북아의 0.5%밖에 차지 못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 철 봉 중국 연길시 경제개발위원회 주임

### 지리적 여건

우선 연변의 지리적 위치가 독특하다. 지구공업단 지화를 향한 거대한 잠재력과 물류중심의 전략적 지위이다. 이 점을 고려 UN은 두만강하류 개발계획을 채택한 바 있으며 UN개발계획에서는 도문강 하류지구를 2개의 크고 작은 3각지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변동부지구에는 5개의 시, 현이 있고 755.2키로미터의 변경선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북한 육로가 서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2개 3각 지구의 중심부위에 처해 있고, 길림, 요녕, 흑룡강의 거대한 농공업시장으로 들어가는 철도, 도로가 있으며 일본해로부터 유럽대륙으로 들어가는 합류처와 물류중심이다. 이미 연변에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공업단지가 있으며 거기에다가 “닭울음소리가 3국을 깨운다”라는 우월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연변을 동북아 경제무역중심으로 건설하는데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변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량이 있다. 연변자치주 전체 삼림녹화율이 87.2%에 달하고 이미 50여종의 금속과 40여종의 비금속이 채취된 바 있으며, 크고 작은 하천이 387갈래가 있고, 1500여종의 야생경제식물과 200여종의 야생경제동물이 있으며, 인삼, 녹용, 사과배와 담배잎 등 지방특산물을 생산하며, 농공업생산, 교통운수방면에 견고한 기반을 갖추었다. 연변에는 또한 훌륭한

명성을 가진 백두산이 있고 여행자원이 풍부하다. UN 두만강개발계획에 의하면 연변은 남쪽으로는 남북한과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의 경제무역관계를 더 개척하고 도문강 통로를 열어 일본과의 경제기술합작을 발전시키는 한편 서쪽으로는 몽골, 동부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변은 동북아로 향하는 대외개방방침을 확립하고 훈춘, 도문을 개발의 선두로 산업도로와 철도선, 등 전 연변지역의 개발을 이끄는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 유리한 인적자원

연변의 총 인구는 약 213,8만명이고 이십여개의 소수민족이 집결한 곳이다. 주 내의 조선족은 한족을 제외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다. 현재 조선족은 85.4만명이고 자치주 전체인구의 39.9%를 차지하며 하사크족, 러시아족등 소수민족이 있으며, 이런 민족 주민은 주변국가에 자기의 친척과 연고들이 있다는 특점을 갖고 있다. 특히 연변, 중국 및 한반도 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구를 제2고향으로 취급한다. 연변의 각 민족 국민들의 국외와의 인재 왕래는 개혁개방의 부단한 신임에 따라 날마다 빈번하여지고 있다. 특히 주변국가와 경제생활상에서 유무상통하고 문화교류가 광범위하여 날마다 흥성하는 사회경제관계를 형성하였기에 연변이 변경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연변의 경제개발과 정보산업

연변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정보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에 적절하게 산업구조 및 인력구조를 조정하여야 하며, 바로 연변이 정보사업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한다. 연변은 공업 과학 기술 등 방면에서 낙후하지만 농업과학기술, 의약 과학 기술 등의 방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풍부하고도 독특한 자연자원은 외자를 들여 개발하는데 유리하며 한층 더 정보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변은 국제경제특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대량의 정보교류를 진행될 것이며, 정보관련 기술산업이 융성하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 및 일본과 한국 나아가서 더욱 많은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와 교역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연변의 고 부가가치 기술 및 정보산업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변은 다음과 같이 우선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최신 정보산업개발단지 건설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최신정보산업개발단지를 건설하고, 관련 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이다.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과학적이고 명확한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그의 합당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정보산업의 생산력으로 하여금, 국민생산 총액의 10%에 달하게 하며 정보산업 생산품수출액이 연변수출액의 80%이상에 달하게 한다.

개발단지의 관리체제를 수립한다.

개발단지 관리기구의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일정한 항목 심사비준, 수출입 업무관리, 노동인력관리 등 세무, 은행, 세관 등의 부문이 개발단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체제를 수립한다.

개발단지 시장체계의 형성을 가속화한다.

시장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 운영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반드시 힘써 개발단지의 생산자료시장, 기술상품시장, 금융시장, 증권시장, 인력시장, 정보기술시장 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완성해야 하며, 이에 상응한 시장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 훌륭한 시장질서를 형성한다.

과감한 투자정책을 수립한다

과감한 투자정책은 정보산업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선결과제이다.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의 투자환경을 넓힌다. 예를들면 금융기구, 보험기구로 투자회사를 꾸리고, 사회 각 방면의 호응을 얻어 정보산업기금을 마련하고 은행이 정보산업발전의 저리대부금항목을 설정하는것 등이다. 그밖에 해외금융기구가 연변개발단지내에 투자회사를 꾸리도록 유도한다.

정보기술산업의 국제화를 실현한다

최신 정보산업의 발전추세를 유의 분석하여 연변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를 선택하여 정보기술 상품화, 산업화, 국제화를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 연변의 농업과학기술, 의약과학기술 방면의 과학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으므로, 이런 방면의 기술, 지능과 노동집약형의 정보산업을 발전을 꾀하도록 추진한다.

개발단지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배양한다

관리인재의 배양은 개발단지 발전을 가름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 여러 개발단지 및 그 관련 기업에는, 경영관리를 모르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단지 및 그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을 참고로 하루빨리 정보기술, 외국어를 장악하고 관리, 경영할 줄 아는 과학기술기업가를 배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연변의 정보산업이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

## ■ 중국의 인터넷 설치 현황

중국의 인터넷은 현재 과학기술 등 전문 네트워크 4개,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향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하나가 있다.

중국은 어려운 경제적 요인을 심사숙고하며 네트워크들을 구축해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 NCFnet (중국과학아카데미)

○ IHEPnet (고에너지물리학회)

일본 쓰구바 KETnet을 통해서 미국 ESnet과도 연결

- BUCTnet( 베이징화공대학)  
일본의 아시아 교육연구망(CAREN)과 6Mb ps로 연결
- CERnet(중국교육망)  
중국내 100개 대학에 백본 연결
- CHINAnet(중국 우정성망)  
중국의 산업계와 상업계 연결 사용, 북경과 상해에서 서비스 중

### ■ 연길지역 정보통신망 실태와 전망

연길지역의 정보통신망 실태는 다음과 같다.

- 1994년 연길지역내의 PC통신 개통
- 길림지역 우정국 통신망 9월 개통
- 우정국망 이용 길림성 PC통신망 96년 개통 예정
- 우정국망 이용 인터넷 9월말 개통
- 정보통신 활성화의 관건은 PC사용자 확대, DB 제공업체 통신망 연결
- 인터넷 국제 출구는 우정국
- 모든 구간 통신망 광섬유화
- 가입망은 직경 0.4mm의 동케이블
- 97년 상반기까지 질 좋고 속도 빠른 통신망 완성
- 음성정보서비스 생활정보중심 서비스중
- 기술인력 부족 심각

### ■ 연길지역 공업단지 조성 계획

연길시는 자체발전을 위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 연길시는 동쪽에 공업, 남쪽에 레저 오락, 북쪽에 농축산업, 서쪽에 공항 및 전원도시를 각각 개발하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 동쪽의 공업단지 계획은 92년 8월에 길림성의 허가를 얻었다. 구체적인 가구 설치와 인력배치는 95년부터 시작
- 공업단지의 총규모는 5.33평방km이며, 우선 1.25평방km에 3,000여만원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중국은 78년 이후 발전이 가속되어 중앙정부의 할일이 너무 많아 연길지역 지원 불가능

- 따라서 자체기반 조성, 투자환경 조성, 외국의 기술 및 자금관리 기법 도입 시급
-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개발구 유혜정책 실시중
- 연길도 국내의 사례검토중, 결과
  - 공업우선
  - 외국자본 유치
  - 수출공업 중심(3단계 5개년 계획 구상)
    - ① 첨단기술 개발(산업의 중심)
    - ② 제약산업(산업의 중심)
    - ③ 과일 야채 등 식품산업(자연조건상 유리)
    - ④ 포장산업
    - ⑤ 낙후된 포장기술 개발로
    - ⑥ 금속산업(알루미늄 등)
    - ⑦ 건축자재(기후조건에 맞는 자재 생산)
    - ⑧ 관광상품
- 산업인프라 관련
  - 국제항로 개선
  - 국제 세관 설치
  - 투자제약 조건 해소

### ■ 기 타

- PC보급은 약 3,500대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대부분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개인의 구매는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종은 기업에서는 i486과 i586을, 개인은 i386과 i486을 구매하고 있다. 개인구매는 자녀교육용이다.
- 연길 화연그룹 정보센터에서 PC통신을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미약하다. 호스트 1,00M바이트 정도에 포트수가 2개에 불과하다. 자체개발한 컴퓨터 통신용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데, 관리를 위한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ID라 하긴 어렵다. 300개 정도의 가입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기업이고 개인가입자는 극히 소수이다. E-MAIL은 안되고 있다. 10월에 중국 우정부의 네트워크가 개통되면 인터넷을 통한 E-MAIL 전송과 ID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모뎀을 사용하고 163번을 호출하는 패킷전용 다이얼업 방식이다.
- 중국은 원칙적으로 통신사업 합작은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CHINAnet 등 몇개의 망이 있으나 일반인의 해외접속은 중국 우정부의 관문을 통해야 한다.

- 연결시가 속해 있는 길림성의 전화보급은 100명당 24명이고, 가구수 대비 85%이다.
- 연결지역의 컴퓨터 학원 교육은 약 5년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매달 100명정도 수강하고 있고 취직율도 높다. 길림성의 각 현시(懸, 市)에

기술학교가 있으며, 연결시의 중학교 이상은 거의 다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식출세를 위한 관심 등으로 컴퓨터 교육열이 높으며 시설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한국의 Hitel 등 PC통신의 정보는 신문 뉴스만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좋은 교류의 채널이 될 것이다.

## 연변의 경제정보DB구축 및 발전방향

몇년내 연변의 정보문화사업은 매우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컴퓨터 정보통신사업이 바야흐로 규범화, 컴퓨터화, 데이터베이스(DB)화, 네트워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소 광 회 연변화연그룹 컴퓨터정보센터 주임

세계는 고도로 정보화 되어 가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하의 무력경쟁을 두고 경제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보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신속한 정보수집과 처리는 국가발전의 성패와 한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되고 있다.

현시대 정보산업은 이미 사회생산력과 물질에너지 다음의 사회발전을 유지하는 제3자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는 기업을 시장으로 떠밀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속에서 기업은 새정보를 부단히 수집, 조합, 분석, 처리하여 정보사유의 지도하에서 수시로 자신의 시장경쟁력을 증강하고 온당하게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현실이 증명하다시피 현시대 새롭고 가치있는 정보는 기업의 휘황한 미래를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몇년내 연변의 정보문화사업은 매우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컴퓨터 정보통신사업이 바야흐로 규범화, 컴퓨터화, 데이터베이스(DB)화, 네트워크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종합 분류하고 아울러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을 수합하고 DB에 수록하여 누구든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말하자면 거대한 전자정보도서관 역할을 바로 컴퓨터와 전화망을 연결시킨 PC통신이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연변주내의 기업과 각 사회단체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권위성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변과 나아가서 두만강지역 국제화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취지로 연변화연그룹컴퓨터정보센터는 1993년 5월에 창립되었다.